

2015 / 10 / 29 (THU)

인터넷 / 소프트웨어 / 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업종별 Comment

전일 국내 인터넷/SW 섹터는 혼조세. 美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FOMC 회의결과와 관망하며 혼조 마감.

삼성SDS의 약세로 IT서비스 업종이 2%대 하락한 반면 NAVER와 카카오의 동반 강세로 인터넷 업종은 2%가량 상승.

수급측면에서는 동반매수세가 나타난 더존비즈온 강세. 반면 기관의 매도세로 삼성SDS 약세.

종목별로는 3Q 실적반등이 예상되고 있는 NAVER가 2.3% 상승 마감.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NAVER	143 억	SK	-137 억
삼성에스디에	31 억	NHN엔터	-22 억
컴투스	25 억	웹젠	-21 억
다우기술	8 억	엔씨소프트	-18 억
아프리카TV	8 억	코나아이	-12 억
더존비즈온	6 억	인피니트헬스	-7 억
유비케어	6 억	위메이드	-5 억
이니텍	5 억	사람인에이치	-4 억
SGA	4 억	포스코 ICT	-3 억
게임빌	3 억	칸벨미디어	-3 억
원스	3 억	한국사이버결	-2 억
데브시스템즈	2 억	알서포트	-2 억
오픈베이스	2 억	다날	-2 억
보타바이오	2 억	소리바다	-2 억
KG이니시스	1 억	액토즈소프트	-2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컴투스	37 억	삼성에스디에	-112 억
웹젠	31 억	NAVER	-97 억
SK	27 억	조이시티	-68 억
위메이드	16 억	NHN엔터	-24 억
더존비즈온	12 억	카카오	-16 억
엔씨소프트	10 억	신세계 I&C	-5 억
사람인에이치	9 억	선데이토즈	-5 억
KG이니시스	9 억	아프리카TV	-4 억
코나아이	9 억	한글과컴퓨터	-1 억
라운시큐어	5 억	엑셀	-1 억
유비벨록스	5 억	조이맥스	-1 억
MDS테크	5 억	파트게임즈	-1 억
비트컴퓨터	3 억	액토즈소프트	-1 억
한국사이버결	3 억	민앤지	-1 억
골프존	3 억	드래곤플라이	0 억

국내 인터넷/소프트웨어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282.41	0.0%	-14.1%	-1,315 억	1,109 억
(코) 인터넷	19,496.70	1.1%	2.3%	-2 억	-3 억
(코) IT S/W&SVC	2,221.95	0.6%	11.1%	-15 억	12 억
(코) 소프트웨어	320.03	0.4%	30.5%	-5 억	1 억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577,000	2.3%	-19.0%	143 억	-97 억
카카오	114,900	1.5%	-7.0%	0 억	-16 억
한국사이버결	31,200	-0.2%	16.9%	-2 억	3 억
KG이니시스	17,250	0.6%	-3.6%	1 억	9 억
KG모빌리언스	15,500	-0.6%	6.5%	0 억	0 억
사람인에이치알	23,950	-1.0%	113.8%	-4 억	9 억
KTH	9,020	3.2%	17.9%	1 억	0 억
아프리카TV	26,500	2.7%	-0.9%	8 억	-4 억
SK컴즈	7,540	-3.1%	13.4%	-2 억	-
KT뮤직	5,030	-0.4%	-6.7%	-1 억	-
다날	10,100	-1.0%	24.7%	-2 억	-
에스24	11,950	2.1%	71.4%	0 억	3 억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81,000	-4.3%	-4.3%	31 억	-112 억
SK	266,000	-0.4%	24.6%	-137 억	27 억
다우기술	25,000	-0.4%	109.2%	8 억	0 억
포스코 ICT	5,010	0.6%	-5.5%	-3 억	2 억
신세계 I&C	121,000	-0.4%	8.0%	1 억	-5 억
동부	5,850	-3.5%	133.1%	0 억	-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185,500	-0.5%	1.9%	-18 억	10 억
컴투스	116,600	0.7%	-3.3%	25 억	37 억
NHN엔터테인먼트	54,600	1.3%	-35.5%	-22 억	-24 억
웹젠	32,000	-0.5%	10.2%	-21 억	31 억
위메이드	47,100	1.1%	24.6%	-5 억	16 억
선데이토즈	14,350	6.7%	-16.6%	1 억	-5 억
액토즈소프트	36,050	-1.5%	7.6%	-2 억	-1 억
게임빌	90,000	-5.2%	-25.4%	3 억	1 억
네오위즈게임즈	17,200	0.6%	-24.4%	1 억	0 억
넥슨지티	14,300	0.7%	12.2%	0 억	1 억
데브시스템즈	31,500	1.8%	-34.0%	2 억	0 억
조이시티	27,450	-1.3%	35.9%	0 억	-68 억
파트게임즈	44,650	-0.6%	71.4%	1 억	-1 억
조이맥스	23,600	7.0%	-13.6%	-2 억	-1 억
한빛소프트	7,260	-2.9%	25.4%	0 억	-
와이드온라인	7,410	-0.1%	60.4%	-1 억	-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코나아이	37,450	1.9%	11.1%	-12 억	9 억
더존비즈온	22,400	3.2%	140.9%	6 억	12 억
한글과컴퓨터	22,150	1.6%	9.7%	1 억	-1 억
골프존	99,600	-0.4%	294.5%	-1 억	3 억
안랩	42,300	0.0%	17.5%	0 억	0 억
한국정보인증	14,500	0.0%	317.3%	-2 억	0 억
슈프라마	21,700	1.6%	-14.7%	0 억	1 억
갤럭시아컴즈	6,400	5.6%	136.2%	-1 억	-
지트리비엔티	11,850	-2.1%	243.5%	1 억	1 억
MDS테크	25,150	1.2%	21.5%	0 억	5 억
오상자이엘	11,450	3.2%	-13.9%	1 억	-
인피니트헬스케어	10,200	-2.9%	40.9%	-7 억	-
케이사인	3,175	-2.6%	29.1%	0 억	0 억

해외 Internet/Software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53.70	1.2%	4.6%
MSCI Internet	190.91	0.3%	25.0%
MSCI IT Services	127.18	1.4%	8.0%
MSCI Software	180.72	1.0%	10.5%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736.92	0.6%	38.9%
Facebook	104.20	0.5%	33.6%
Tencent	149.80	0.5%	33.2%
Baidu	172.54	-0.8%	-24.3%
Yahoo	35.19	2.6%	-30.3%
LinkedIn	213.21	1.6%	-7.2%
Twitter	30.87	-1.5%	-13.9%
Weibo	17.25	1.5%	21.1%
SINA	48.35	3.2%	29.2%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40.83	2.2%	-12.2%
TCS	2,529.10	-0.1%	-1.1%
Accenture	109.73	1.7%	22.9%
HP	27.98	1.9%	-30.3%
Infosys	1,153.20	0.3%	16.9%
Wipro	578.00	0.5%	4.1%
NTT Data	6,300	2.6%	39.5%
Fujitsu	604.80	0.6%	-6.1%
CSC	67.04	1.5%	6.3%

Games

	close	1D	YTD
Nintendo	23,010	-1.0%	82.5%
EA	76.77	2.0%	63.3%
Blizzard	35.28	1.1%	75.1%
NEXON	1,684	-0.1%	49.7%
NAMCO	2,964	-0.4%	15.6%
King	14.98	2.0%	-2.5%
Konami	2,697	1.6%	21.5%
Square Enix	3,255	-0.6%	29.8%
GungHo	386	-0.8%	-12.5%
DeNA	2,445	1.5%	69.1%
Sega	1,279	-0.6%	-17.8%
Take-Two	33.49	1.1%	19.5%
Zynga	2.43	1.7%	-8.6%
Ubisoft	26.23	-1.6%	72.9%
Gree	590	-1.0%	-18.5%
Changyou	19.82	2.5%	-27.6%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53.98	0.5%	16.2%
Oracle	38.88	1.4%	-13.5%
SAP	78.03	1.3%	12.0%
EMC	26.15	0.4%	-12.1%
Salesforce	78.53	1.0%	32.4%
Adobe	88.50	0.5%	21.7%
Vmware	60.90	3.9%	-26.2%
Suitint	97.99	0.0%	6.3%
Syantec	20.60	0.8%	-19.7%
CA	27.75	1.4%	-8.9%
Citrix	84.17	2.4%	31.9%
Autodesk	55.50	2.6%	-7.6%
Synopsys	50.58	2.5%	16.4%

인터넷 Internet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KTH	3.2%	실적발표

News & Issue

'T커머스 진출' KTH, 매출 20.4% ↑ 영업이익은 64% ↓

KTH는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 418억원, 영업이익 7억원, 당기순이익 4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20.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64% 감소했다. KTH는 "T커머스 사업의 성장에 따라 인력 및 플랫폼 신규 입점, 제작 자원 등 투자가 확대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며 "당기순이익에는 kt캐피탈 지분 16.41% 전량 매각에 대한 이익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3분기까지의 누계실적은 매출액 1153억원, 영업이익 42억원, 당기순이익 81억원으로 매출액은 전년(974억원) 대비 18.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년(50억원) 대비 16% 감소했다.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상승한 것은 T커머스 사업의 꾸준한 성장에 따른 것이다. T커머스 서비스 K쇼핑의 3분기 매출은 108억원으로 전년 동기 57억원에 비해 89.5% 증가했다.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도 277억원으로 전년 3분기 누적 매출 179억원 대비 54.7% 상승했다.

오세영 KTH 사장은 "올 한해는 K쇼핑의 성장을 위한 플랫폼 확대, 전문 인력 확보, 인프라 확대와 함께 맞춤형 TV PAY, 연동형 T커머스 등 서비스의 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시기"라면서 "내년 초까지 플랫폼을 더욱 확대해 200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마케팅을 강화해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NAVER	2.3%	실적발표

News & Issue

네이버, 3분기 영업이익 1,995억원, 컨센서스 부합

네이버가 29일 2015년 3분기 매출 8397억원, 영업이익 1995억원, 순이익 1168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매출은 라인 등 글로벌 서비스의 매출 호조로 해외 매출 비중이 35%까지 확대됐다.

사업별 매출 및 비중은 광고 5870억원(70%), 콘텐츠 2441억원(29%), 기타 86억원(1%)이다. 전체 매출 중 모바일 비중은 55%, PC 45%를 차지했다. 광고는 모바일 부문의 지속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 전분기 대비 5.1% 성장한 5870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 매출 비중은 40%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며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국내 광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전분기 대비 1.3% 증가했으며 특히 해외 광고는 라인 공식계정, 스폰서 스티커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58.7%, 전분기 대비 32.3% 성장했다. 전체 광고 매출 중 15%의 비중을 차지했다.

콘텐츠 매출은 국내, 해외 매출의 고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년 동기 대비 27.7%, 전분기 대비 14.5% 증가한 2441억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6%, 전분기 대비 19.4% 증가한 1995억원을 기록했다. 라인 주식보상비용 287억원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2282억원, 영업이익률은 27.2%이다.

한편 라인주식회사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4%, 전분기 대비 16.1% 증가한 322억엔(한화 약 3047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네이버 김상헌 대표는 "해외 매출과 모바일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3분기에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검색, 쇼핑, 네이버페이 등 사용자 경험 개선을 통해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웹툰, V(브이) 등 글로벌 서비스가 해외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 Gam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최근이슈

News & Issue

지스타, 덩치는 커졌지만 '기대만 우려반'

국제게임박람회 '지스타'가 올해 최대 규모로 열린다. 전년 대비 참가부스 규모가 줄어들 것인 업계 예상을 보란 듯이 뒤집었다. 지난해보다 2.7% 성장한 2636부스(B2C 1450부스, B2B 1186부스)로 전시 규모를 확정지었다. 몇몇 게임업체를 제외하고 업계 전반이 부침을 겪는 가운데 지스타만은 매년 전시 규모 측면에서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먼저 PC온라인게임 시장 침체로 지스타 흥행이 쉽지 않은 대내외 상황 속에서 이 같은 결과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지스타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험하나 업계가 자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올해 지스타 B2C관 규모 확대엔 넥슨의 역대 최대 규모 참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8일 공개된 지스타 부스 배치도를 보면 넥슨은 올해 300부스(추정)로 참가한다. 이례적인 경우다. 내년에 넥슨이 전시부스를 줄인다면 B2C관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바뀌 말하면 지스타가 개별 업체 참가여부에 따라 흥행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스타를 넥스타(넥슨+지스타)로 부르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재작년을 제외하곤 매년 지스타에 참가해온 엔씨소프트도 넥슨처럼 대체가 불가능한 게임업체다. 대형 MMORPG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엔씨소프트는 지스타 참가 사실만으로도 게이머들을 불러 모은다.

지스타의 고민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혹여 넥슨과 엔씨소프트가 불참을 선언한다면 내년 지스타는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업계 만형인 넥슨과 엔씨소프트가 자의반 타의반 지스타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지스타도 어느덧 11주년을 맞았고 이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갤럭시아컴즈 무슨일? 조현준 사장 첫 장내매수

조현준 효성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주식을 처음으로 장내 매수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사장은 이달 갤럭시아컴즈 주식 2만6101주를 사들였다. 주당 평균 매수 단가는 5895원으로 총 1억5400만원어치다. 조 사장이 갤럭시아컴즈 주식을 장내 매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사장은 2011년과 지난해 9월 갤럭시아컴즈 주식을 장외에서 사들인 적은 있지만 장내에서 사들인 적은 없었다.

최근 조 사장은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사장이 갤럭시아컴즈 지분 확대에 나서자 '호재가 있는 지, 주가 상승 신호인지, 지배력 확장인지' 등이 다양한 분석들이 나온다. 회사 관계자는 "조 사장의 지분 매입은 개인적인 일이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갤럭시아컴즈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해 인터파크콘소시엄(뱅크)에 참여했다. 삼성 전자·우리은행과 협력해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ATM서비스도 시작했다. 조 사장은 갤럭시아컴즈와 콜센터·IT서비스업체 효성ITX 등 ICT 계열사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갤럭시아컴즈와 마찬가지로 효성ITX도 조 사장이 최대주주다.

시장은 올해가 갤럭시아컴즈의 수익성 개선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종속회사였던 휴대전화 결제업체 인포허브 합병으로 외형을 확대했고 적자법인을 정리해 중국 텐페이와 제휴를 통한 해외 수출 증가 효과, 고객사 확대 등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29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10월 2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10월 2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